

복합양식 텍스트에 대한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이해 양상 고찰

이 흠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 수료(제1저자)

서 혁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교신저자)

- I. 머리말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결과 분석
- V. 맺음말

I. 머리말

복합양식 텍스트(multimodal text)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매체 환경 속에서 포스터, 영화, 광고, 신문 등과 같이 다면적인 형태로 구현된 텍스트이며, 문자 언어에 더불어 다양한 기호와 다중적으로 조합되어 그 의미를 표현한다. 이는 기존의 문자 중심 텍스트와 달리 더 확장된 양상으로 구성되었으며, 독자들에 대한 읽기 능력도 한층 더 높게 요구되고 있다.

복합양식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이 기호 작용을 하는 양식(mode)인지, 즉 무엇이 ‘정보’인지를 판단하고 그 의미 기능을 일정한 해석 문법에 맞게 해독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미지나 영상에 담긴 정보를 파악하고, 시각 양식을 문자 양식과 통합하여 이미지의 표면적·심층적 의미를 해독하는 능력, 빠르게 재생되는 영상에서 생산자의 의도나 생산·유통 맥락을 파악하는 등 복합양식 텍스트에 포함된 특정 기호의 작용을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수준에서 읽어내는 능력을 일컫는다(편지윤·서혁, 2020: 204).

이러한 읽기 능력의 확장은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디지털 시대 학습자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지식)를 얻는데, 또 이러한 정보들이 대부분 복합양식 텍스트로 구성되고 있기에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읽기 능력은 더 이상 문자 중심 텍스트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간 한국어 교육에서 복합양식 텍스트는 주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교육이나, 한국 문화 현상 또는 문학 작품을 알아보는 수업에서 ‘보조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즉 복합양식 텍스트를 도구적인 측면¹⁾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복합양식 문식성(multimodal literacy) 교육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어 교육에서도 복합양식 텍스트를 도구적인 측면에서 교육 제재로 활용하여 이해·수용·생산의 측면으로 그 논의의 장이 변화해 가고 있다. 전형길(2020)에서는 영화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복합양식의 교육적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으며, 영화 <부당거래>를 활용하여 말하기 수업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수업에서 학습자는 영화의 한 인물을 변론하고 영화 주제를 통해 현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여 비판적으로 말하는 동시에 사실적 말하기를 수행하였다. 또한 영화를 감상하기 전과 감상한 후에 인터넷에서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찾아 정보의 가치성을 판단하여 그 정보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으로 복합양식 문식성 교육을 실현하였다.

이와 더불어 김혜진·김지혜(2019)에서는 공익 광고를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교수·학습 현장에 적용하여 한국어 중급 학습자들이 산출한 손수 제작물(UCC)을 통해 복합양식 문식성 양상을 살펴보았다. 교수·학습 모형으로는 개념화 단계, 심화·확장 단계, 해석·적용 단계로 구성하였으며 이 모형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학습자들이 제작한 공익

1) 전형길(2017)에서는 한국어 교사 73명을 대상으로 매체 문식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복합양식 텍스트의 활용 목적에 대한 답변에서 다수의 교사들은 도구적인 측면, 즉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령, ‘학습자들의 흥미와 집중력 향상을 위한 것’, ‘교사의 설명을 돋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 등이다.

광고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였다. 복합양식 텍스트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을 통해 학습자들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 생산할 수 있으며, 이로써 복합양식 문식성을 향상하는 데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모두 복합양식 텍스트를 학습 제재로 활용하여 학습자의 문식성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을 진행하였다. 또한 학습자에게 복합양식 텍스트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현대 사회의 다매체 환경에서 새롭게 요구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복합양식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어떤 양식에 주목하였는지, 양식과 양식의 결합, 양식과 전체 텍스트와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 지어 이해하고 추론하였는지, 또 정보 선택 또는 정보 과정으로 인해 텍스트의 의도를 읽어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지 못했다는 데에서 아쉬움을 갖는다. 다시 말해, 복합양식 텍스트와 학습자(독자)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텍스트에 대한 대응 양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복합양식 텍스트를 교수·학습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다루려면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합양식 텍스트를 읽기 교육의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학습자들이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읽기 교육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텍스트(text)는 읽기 행위의 핵심 요소이며,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을 이루어주는 매개체이다. 또한 텍스트는 텍스트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Beaugrande & Dressler(1981/1995)에서는 7가지 텍스트성을 결속성(cohesion), 응집성(coherence)²⁾ 의도성(intentionality), 용인성(acceptability), 정보성(informativity), 상황성(situationality),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편지윤·변은지·한지수·서혁(2018ㄱ)에서는 복합양식 텍스트의 텍스트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재개념화하였으며, 영상 텍스트를 통해 7가지 텍스트성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는 문자 중심 텍스트와 다른 복합양식 텍스트는 ‘보여주는(showing)’ 방식을 취하고, 시각적·청각적 재현의 방식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7가지 텍스트성과 관련된 ‘영상성(imagance)’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상성’을 “양식의 다중적·중층적 결합 구조를 바탕으로 하나의 연합된 ‘상(image)’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의미구성에 관여하는 복합양식 텍스트의 소통 방식과 관련된다”고 정의하였다.

이어 복합양식 텍스트성의 영상성에 대한 의미를 편지윤·한지수·변은지·서혁(2018ㄴ)에서 논의하였으며, 복합양식 텍스트의 기호 작용이 ‘보여주기’의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단일양식 텍스트와 복합양식 텍스트(정태적, 동태적)³⁾의 도상성(iconicity), 중층성(multi-layer nature), 공간성(spatiality), 유도성(inductivity), 감각전이성(sensory transitionality)을 분석하고, 복합양식 텍스트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러한 복합양식 텍스트의 텍스트성에 주목하여 독자의 읽기 양상을 살펴본 연구로는 변은지·편지윤·한지수·서혁(2019), 서혁·한지수·편지윤·

2) 지금까지 ‘cohesion’과 ‘coherence’에 대한 한글 번역 용어로 전자는 ‘응결성, 결속구조, 결속성’, 후자는 ‘응집성, 결속성, 통일성’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편지윤 외(2018ㄱ)를 참고하여 ‘cohesion’을 ‘결속성’, ‘coherence’를 ‘응집성’으로 번역 하여 사용하였다.

3) 복합양식 텍스트는 그림책, 정보 서적 등 정태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인쇄 기반 텍스트(이하, 정태적 복합양식 텍스트)’와 인터넷, 동영상과 같이 동태적인 형태를 가진 ‘비인쇄 기반 복합양식 텍스트(이하, 동태적 복합양식 텍스트)’로 구분된다(편지윤 외, 2018ㄴ: 128; Walsh, 2006)

변은지(2018)가 있다. 변은지 외(2019)에서는 복합양식 텍스트성의 ‘영상성’에 주목하여 ‘도상성’, ‘중층성’, ‘공간성’, ‘유도성’, ‘감각전이성’과 학습 목적 읽기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도상성이 텍스트의 직관적 이해와 배경지식 활성화에, 중층성이 중심 내용 파악과 내용 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층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나 영상 텍스트의 일시적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유도성에 있어서 학생들이 메타적으로 텍스트를 인지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감각전이성은 학생들의 학습 목적 읽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혁 외(2018)에서는 텍스트성의 한 요소인 ‘정보성(informativity)’에 초점을 두어 디지털 원주민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양식의 정보성 인식 양상을 살펴보았다. 실험은 광고 영상을 시청하게 한 후 광고 전반에 대한 정보 회상 검사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수의 학생은 ‘문자’나 ‘내레이션’과 같이 의미 정보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기호에 대한 의미 처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문자의 크기, 색상, 이미지’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합양식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학습자(독자)가 기존 단일양식 텍스트를 읽는 역할에서 변화되어 다양한 시각적 요소들을 읽는 ‘독자-뷰어(viewer)’로 읽기를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독자의 역할을 ‘탐색자(navigator)’, ‘해석자(interpreter)’, ‘설계자(designer)’, ‘심문자(interrogator)’로 유형화한 연구가 있다(최숙기, 2013; 편지윤 2020 ↳; Serafini, 2012).

즉 탐색자(navigator)로서의 독자는 복합양식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문어 텍스트를 해독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미지나 다른 시각적 요소나 디자인에 관련된 구조나 코드를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해석자(interpreter)는 복합양식 텍스트에 제시한 필자의 의도, 텍스트의 추론이나 개인적 경험이나 배경 지식, 읽기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설계자(designer)는 탐색자로서의 독자보다 더욱 능동적인 독자

로서, 독자가 자신의 특정한 요구나 관심에 적합한 형태로 복합양식 텍스트의 요소들을 구조화(framing)하여 자신만의 읽기 경로를 형성하는 것이며, 심문자(interrogator)는 비판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특정한 이미지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사회적 권력 체제나 이데올로기 내에서 특정한 이미지의 구성 방식이나 전달 요소가 가진 편견 요소 혹은 이를 둘러싼 권력 구조나 관계를 끊임없이 상기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최숙기, 2013: 251-253).

이러한 4가지 국면을 바탕으로 편지윤(2020)에서는 성인 독자들이 복합양식 텍스트를 읽을 때 각 국면에서 나타난 전략적 대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탐색자의 국면에서 독자들이 ‘정보성(informativity)을 기준으로 의미 있는 양식을 선정하기’, ‘따라가며 읽기’, ‘선택적으로 양식에 접근하기(access)’ 등 전략을 사용하였고, 해석자의 국면에서는 독자들이 ‘정박(anchor) 기제를 중심으로 다른 양식의 의미 기능 또는 전체 텍스트의 의미 추론하기’, ‘내용 및 구조 스키마를 활용하여 양식의 의미 기능 추론하기’, ‘재현 단서(representation)를 활용하여 텍스트 맥락 추론하기’ 등 전략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설계자의 국면에서는 ‘읽기 경로의 구축과 독자의 주체적 프레이밍 실현하기’의 양상이 보였으며, 심문자 국면에서는 ‘텍스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텍스트가 실현하는 의미작용의 정치에 대항하여 대안적 읽기’를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를 수행할 때 독자의 읽기 전략에 주목한 연구는 또 편지윤(2020), Bearne(2005/2011) 등이 있다. 편지윤(2020)과 Bearne(2005/2011)에서는 독자들이 문자 중심으로 된 단일양식 텍스트 읽기에서의 전략을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에 전이된 모습이 보였으나 전이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편지윤(2020)에서는 복합양식 텍스트 유형별 읽기 전략을 살펴보았으며, 정태적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에서는 ‘훑어읽기’, ‘주체적 탐색 및 설계하기’의 전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동태적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에서는 ‘주어진 속도에 대응하기’

를 위한 전략에서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기’, ‘선택적으로 읽기’, ‘정리 페이지를 활용하여 후방 추론하기’, ‘스타일로 읽기’ 등의 전략을 확인하였고, ‘분할되어 연쇄적으로 제시되는 구조에 대응하기’를 위한 전략에서는 ‘패턴 찾아 읽기 경로 구축하기’, ‘구획하기를 통해 문단 형성하기’ 등의 전략이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Bearne(2005/2011)에서는 동태적 복합양식 텍스트를 대상으로 ‘문단 건너뛰기’, ‘읽기 속도 조절하기’, ‘읽었던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기’ 등 읽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한 반면, ‘건너뛰기’와 같은 서사적 의미의 흐름을 방해하는 전략은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국어교육에서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독자가 의미구성에 관여된 양식들을 읽어나갈 때의 읽기 행위와 읽기 전략을 살펴본 연구들로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하듯 한국어교육에서 복합양식 텍스트를 읽기의 측면에서 다루는 연구는 미흡하다. 즉 복합양식 텍스트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복합양식 텍스트 이해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서혁·편지윤·변은지·이훔(2021)에서 개발한 문항지를 바탕으로 예비실험⁴⁾을 진행하였다. 이 문항지는 문자 중심 텍스트와 복합양식 텍스

4) 예비실험은 총 1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모두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6급을 취득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이다. 읽기 영역의 평균 성적은 90점(100점 만점) 내외이다.

트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복합양식 텍스트만 추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문항지는 정태적 복합양식 텍스트 3개와 동태적 복합양식 텍스트 4개를 활용하여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⁵⁾ 실험은 50분 내에 모든 문항을 풀어야 하며 영상(동태적 복합양식 텍스트)의 경우 1회만 시청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읽기 중 추론적·비판적 읽기에 대해 어려워하였으며, 특히 추론적 읽기의 ‘통합 및 관계 생성’⁶⁾에 해당된 문항에서 다양한 양상이 보였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총 12문항 중 예비실험의 결과에 의하여 다양한 양식들이 포함된 텍스트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다층위적·다각적으로 의미구성을 할 수 있는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이해 문항을 각각 1문항씩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자세한 문항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문항 정보

	평가 요소	텍스트 유형
사실적· 추론적 이해	양식 식별, 양식 해독, 양식 간 관계 추론	전시회 포스터 (서울도서관, 2019) ⁷⁾ 정태적 복합양식 텍스트

- 5) 서혁 외(2021)에서는 문자 중심 텍스트 읽기와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 능력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문항지를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복합양식 텍스트 문항지는 편지윤·서혁(2020)에서 제시한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의 인지적 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이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후, 문자 중심 텍스트 읽기와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 능력의 관계를 양적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복합양식 텍스트 문항지를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의 읽기 양상을 질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 6) ‘통합 및 관계 생성’은 복합양식 텍스트의 추론적 이해 능력을 확인하는 요소이며, ‘양식’의 차원에서 ‘양식 간 관계 추론’, ‘텍스트’의 차원에서 ‘정보 간, 의미 국면 간 관계 추론’, ‘맥락’의 차원에서 ‘사회문화적 맥락 추론’으로 구성되었다(편지윤·서혁, 2020: 235).
- 7) 문항 구성을 위해 전시회 포스터의 일부만 사용하였다.

추론적 이해	사회문화적 맥락 추론	사이다 광고 (동아오츠카, 2013) 동태적 복합양식 텍스트
비판적 이해	양식 사용의 적절성 판단, 텍스트 디자인 적합성 평가	교복 전단지 (SNSD RADIO & NEWS, 2006) 정태적 복합양식 텍스트

텍스트 ①은 정태적 복합양식 텍스트로써 문자, 이미지, 폰트, 색깔, 레이아웃 등 다양한 양식으로 구성된 포스터이다. 이는 ‘함께 놀자 동무야’라는 문구와 여러 양식들의 조합으로 남북한 통일을 기원하고 서로 간의 ‘공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회의 포스터이며, 전시회 포스터의 주제와 관련된 양식들을 인식, 해독하여, 양식의 결합을 통해 양식 간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사실적·추론적’ 이해를 도모하는 서답형 문항이다.

텍스트 ②는 동태적 복합양식 텍스트이며 문자 양식과 시청각 양식들이 중요한 기호 작용을 하는 32초 분량으로 된 짧은 광고이다. 광고에는 빨간색, 초록색, 투명색, 흰색 옷을 입은 여자가 각각 색소, 칼로리, 보존료, 설탕이라는 팻말을 걸치고 등장하며 남자를 유혹한다. 그러나 남자는 이들을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가면서 높은 계단 위로 올라서고 뒤를 돌아보면서 기포 속으로 사라져 ‘N 사이다’ 캔으로 대체된다. 이 영상은 타사 제품과 자사 제품을 ‘성별’과 ‘구도’의 요소를 통해 대립적 관계와 우월 관계를 표면적·함축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학습자들의 ‘사회문화적 맥락 추론’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추론적’ 이해 차원의 서답형 문항이다.

또한 **텍스트 ③**은 정태적 복합양식 텍스트이며, 교복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광고 전단지이고, 남녀 교복의 디자인과 기능을 말풍선, 글씨 색깔, 남녀 구도 등을 만화적인 효과로 표현한 인쇄물이다. 학습자들은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교복 광고 품평회’를 진행하며, 제시한 광고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교복 광고의 디자인 측면에 대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제시한다. 이는 전단지에 포함된 양식과 전단지에서 제시하고자 한 의도를 파악한 후,

텍스트 디자인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둔 ‘비판적’ 이해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답형 문항이다.

이상의 문항을 통해 학습자들의 이해 수준을 살펴보았으며, 실험이 끝난 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학습자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어떤 양식에 주목하였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답을 알아냈는지’ 등으로 문항을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 조사하였고, 마지막으로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에 대한 필요성’, ‘정태적·동태적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에 대한 차이’,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에 대한 어려운 점’ 등과 같이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분석

본 실험은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 12명⁸⁾을 대상으로 복합양식 텍스트에 대한 이해 양상을 살펴보았다. 참여자는 모두 한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이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6급을 취득한 고급 학습자이다. 이들의 읽기 영역의 평균 성적은 91.2점(100점)이며, 평소에 주로 학문적 읽기와 디지털 읽기⁹⁾를 수행하고 있다.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 과정을 살펴본 결과, 학습자들은 자신만의 읽기 경로에 따라 양식을 식별하고 해독하며 나아가 텍스트의 전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로 다양한 양식을 결합하여 읽어나가면서 의미 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식 사용의 적절성과 텍스트 디자인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관점을 갖고 있

-
- 8)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 12명을 S1~S12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 9) 여기에서 제시한 ‘디지털 읽기’는 주로 온라인 매체를 통한 뉴스,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을 보는 것을 말한다.

으며 나아가 사회현상에 대한 이데올로기 측면까지 비판하였다.

1. 사실적·추론적 이해의 측면

‘사실적·추론적’ 이해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 ①은 주로 학습자들이 복합양식 텍스트에 포함된 양식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양식 간 관계 추론’은 복합양식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며, 일정한 기호 작용을 하는 양식들이 평면적으로 펼쳐졌을 때 그들 간의 관계를 추론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가령, 문자 언어와 이미지 또는 이미지와 이미지가 텍스트의 문맥에 따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텍스트에 있는 특정 양식을 식별하고, 그 의미 기능을 해독해내야 한다.



〈그림 1〉 텍스트 ① (전시회 포스터)

텍스트 ①은 남북한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서로 간의 ‘공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회 포스터이며, ‘함께 놀자 동무야’라는 문구와 다양한 양식들로 그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학습자들은 포스터에 있는 특정 양식을 식별하고 해독하는 것을 통해 포스터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표 2〉 학습자들이 식별한 디자인 요소

디자인 요소	빈도
1. 비둘기	12
2. 함께 책을 읽는 사람들	12
3. ‘함께 놀자 동무야’ 중 ‘야’에 대한 디자인	11
4. 전시회 날짜 배경색	1

디자인 요소에서 가장 많이 식별된 것은 포스터 배경에 있는 ‘비둘기’ 그림이다. 주지하듯,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주제와 관련된 요소를 작성할 때 첫 번째로 모두 ‘비둘기’를 제시하였다. 특히 파란색 허늘에 흰색 구름으로 된 배경에서 비둘기 그림을 추가한 것은 ‘평화’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더 잘 드러냈다는 점에서 포스터의 ‘평화·통일’과 연관 짓는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제시된 요소는 ‘함께 책을 읽는 사람들’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서로 다양하다.

연구자: ‘함께 책을 읽는 사람들’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S1: 남북한 사람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북한-남한-북한-남한-북한-남한’으로 중간중간에 끼어 앉는 모습이 남북한이 하나로 융합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S2: 다 같이 웃는 모습으로 책을 보고 있는 화기애애한 장면이에요.

S5: 붉은색 넥타이를 맨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잖아요. 남한 사람들과 서로 끼어

앉아 책을 보는 모습이 친밀해 보였어요.

S6: 함께 책을 보면 웃는 모습을 전체 화면 중앙에 배치했기 때문이에요.

‘함께 책을 읽는 사람들’을 하나의 양식으로 봤을 때, S1과 같이 책을 함께 읽는 모습에서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끼어 앉아 있는 장면에 주목한 학습자(S5, S7, S8)가 있고, S2처럼 ‘다 같이 웃으면서 책을 보는 모습’에 초점을 둔 학습자(S3, S4, S6, S9, S10, S11, S12)가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S1의 답변에서 ‘사람의 배치’와 ‘남북한 통일’을 연관 지은 것이다. 이는 학습자가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을 분리하지 않고, 서로 끼어 앉은 모습에서 남북한을 하나로 융합하였다는 것으로 텍스트를 해독하였으며, 이것을 포스터의 ‘남북한 평화·통일’과 연관 지었다. 또한 S5는 ‘붉은색 넥타이를 맨 사람’을 주목하여 의미구성을 진행하였다. 주지하듯 남북한 관계에서 ‘붉은색’은 ‘북한 문화’를 상징한다. S5는 포스터에 있는 사람의 옷차림을 식별하여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한 후, 포스터의 주제와 연관시켰다. 이는 이미지에 포함된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텍스트 맥락을 연관 지어 읽었다는 것을 뜻한다. S5처럼 ‘붉은 넥타이’에 주목한 학습자는 S1, S7도 있다.

한편, 포스터의 구도에 초점을 둔 학습자도 있었다. S6은 ‘함께 웃으면서 책을 읽는 모습’이 전체 화면 중앙에 배치되었다는 것을 통해 이 그림이 포스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S10도 ‘함께 놀자 동무야’와 ‘함께 웃으면서 책을 보는 모습’이 전체 포스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서로 연관된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함께 책을 읽는 사람’에서 ‘책’에 주목한 S9는 남북한 사람들이 책 한 권을 함께 보는 것은 친목도를 높이는 것이며, S12는 책을 함께 읽는다는 것은 서로 간의 ‘공감’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은 ‘함께 책을 읽는 사람’을 하나의 양식으로 보고, 그중에 포함된 부분적 양식에 초점을 두어 의미 기능을 파악한 후, 텍스트의 문맥에 맞는 연결고리를 추론해낸 것이다. 즉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에 대한 의미구성을

실행하고 있다.

세 번째로 식별된 양식은 ‘함께 놀자 동무야’의 문구 중 ‘야’에 대한 디자인이다. 총 12명 중 11명의 학습자가 ‘야’의 ‘o’에 웃는 얼굴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은 ‘화복함’을 상징한다고 하였으며, S7은 ‘야’의 앞에 ‘동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북한을 고려하였다는 것이며 ‘야’의 웃는 ‘o’과 결합하여 ‘동무’를 환영한다는 의미를 상징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또한 ‘함께 놀자 동무야’ 중의 ‘동무’와 ‘야’ 중 웃는 얼굴 ‘o’의 관계에서 포스터의 의도와 연결 지은 것이다.

한편, 중층적으로 결합된 양식에서 특정 요소를 ‘탐색’¹⁰⁾하는 과정 중 텍스트의 배경색으로 인해 오답을 쓴 학습자도 있었다. 이는 전시회 날짜에 배경색을 더한 것은 진행 일정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답으로 작성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문항에서 추구하고자 한 디자인 요소와는 어긋난다. 즉 진행 일정을 파악할 수 있게 강조 기제를 사용했으나 ‘함께 놀자 동무야’의 포스터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 요소와는 직결적인 관계가 없다.

복합양식 텍스트에서 글씨 크기, 글씨 배경색, 레이아웃, 이미지 등의 양식을 활용하거나 결합하여 특정 부분을 강조 또는 부각할 때 강조 기제가 사용된 부분들에 주목하는 것은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전략일 수 있으나, 부분적 의미를 전체 의미로 일반화하여 텍스트를 오독할 가능성도 있다(편지윤·서혁, 2020: 223). 또한 다양한 양식이 중층적으로 결합한 포스터에서 배경으로 구성된 ‘남북한 지도’를 읽어낸 학습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여러 양식과 색깔로 얹혀 있는 포스터에서 학습자들이 우선적으로 ‘전경’에 배치되어 있는 양식에 대해 눈여겨보고, 음영 처리된 지도가 양식의 밑층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학습자들이 복합양식 텍스트를 읽을 때 다양한 양식의 기능을 ‘탐색’하는 과

10) ‘탐색’은 학습자가 목적이나 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찾아내는 인지 과정을 말한다(편지윤·서혁, 2020: 220).

정, 즉 다양한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양식을 부분적으로 해체해 나가면서 각 양식의 의미 기능을 해석해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추론적 이해의 측면

‘추론적’ 이해 수준을 확인하는 텍스트 ②는 동태적 복합양식 텍스트로써 다양한 시각요소에 더불어 청각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이 문항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보는 것이며, 학습자들이 영상에서 제시한 여러 양식의 의미를 추론해낸 후 텍스트의 맥락에 따라 텍스트에 함축된 의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학습자들의 배경지식 또는 경험과도 관련된다.

▶ 다음 광고 영상을 시청한 후, 영상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여 (가)~(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의미하는 대상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시오.

(가)	(나)
(다)	

•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 _____
• 초록색 옷을 입은 여자: _____
• 흰색 옷을 입은 남자: _____
•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 _____

〈그림 2〉 텍스트 ② ('N 사이이다' 광고)

텍스트 ②는 영상에서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 ‘초록색 옷을 입은 여자’, 그리고 ‘흰색 옷을 입은 남자’의 의미 대상을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추론하는 것을 통해 텍스트에 함축되어 있는 상업적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표 3〉 학습자들이 추론한 의미 대상

의미 대상		빈도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	1. 색소 2. 타사 제품 3. 코카콜라 4. 날씬한 사람	8 2 1 1
초록색 옷을 입은 여자	1. 칼로리 2. 타사 제품 3. 초록색으로 포장한 음료수 4. 살이 많은 사람	8 2 1 1
흰색 옷을 입은 남자	1. 색소, 칼로리 등이 없는 음료수 2. 자사 제품 3. 흰색으로 포장한 음료수 4. 좋은 몸매를 가지고 싶은 사람	8 2 1 1

우선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 ‘초록색 옷을 입은 여자’, ‘흰색 옷을 입은 남자’를 각각 ‘색소’, ‘칼로리’, ‘색소, 칼로리 등이 없는 음료수’로 답한 것은 텍스트의 표면적인 측면에만 주목했다는 것이다. 영상에는 ‘색소’와 ‘칼로리’의 팻말을 걸치고 등장하는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와 ‘초록색 옷을 입은 여자’가 있다. 다수의 학습자들은 팻말과 여자 인물의 결합을 통해 제시된 ‘색소’, ‘칼로리’ 등 화학 성분들이 곧 인물들이 의미하는 대상으로 생각했다. 이는 텍스트 표면에 가시화된 부분에만 주목했을 뿐 텍스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흰색 옷을 입은 남자’에 대한 추론은 다양한 양상이 보였다.

연구자: 왜 ‘흰색 옷을 입은 남자’를 ‘색소, 칼로리 등이 없는 음료수’로 제시하였어요?

S2: 남자가 색소, 칼로리 등을 대표하는 여자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S11: 마지막 장면에서 음료수가 흰색 배경하에서 나타나잖아요. 흰색은 아무것도 없는 투명함을 상징하잖아요.

S12: 흰색 옷을 입은 남자가 ‘맞아 난 제로야’라고 하면서 사라져요. 그 다음 ‘칼로리·설탕·색소·보존료 제로’라는 장면이 나타나요.

S2는 ‘흰색 옷을 입은 남자가’ 등장하면서 화학 성분을 팻말로 건 여자들의 유혹을 무시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에서 남자의 태도를 통해 남자를 ‘색소와 칼로리 등이 없는 음료수’로 추론하였다. 이는 양식 간의 의미 관계하에 ‘N 사이다’는 ‘색소’와 ‘칼로리’가 없는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텍스트의 마지막 장면에서 ‘N 사이다’가 흰색 배경하에 등장한 것을 통해 ‘색소’와 ‘칼로리’가 없는 제품이라는 것을 추론한 S11은 ‘흰색은 아무것도 없는 투명함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S12는 ‘흰색 옷을 입은 남자’가 화면에서 사라지면서 ‘맞아, 난 zero야’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칼로리·설탕·색소·보존료 ZERO’라는 화면으로 전환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흰색 옷을 입은 남자’를 ‘색소와 칼로리 등이 없는 음료수’로 추론한 S12는 영상의 내레이션에 주의를 기울여 청각 양식과 시각 양식을 결합하여 의미를 파악한 것이다.

이로써 동일한 양식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지만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읽기 경로를 통해 의미구성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주목한 양식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자신이 주목한 양식과 장면들을 뛰어내어 해석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와 ‘초록색 옷을 입은 여자’를 ‘타사 제품’, ‘흰색 옷을 입은 남자’를 ‘자사 제품’으로 추론한 학습자도 있다. 이는 영상에서 제시한 ‘내레이션’과 ‘구도’를 통해 읽어낸 것이다. S9는 ‘흰색 옷을 입은 남자’가 ‘색소’, ‘칼로리’, ‘설탕’, ‘보존료’로 등장한 여자들을 무시하고 ‘난 너희들과 섞이기 싫어’라고 하면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장면(〈그림 3〉의 좌측 그

림)을 통해 ‘타사 제품’과 ‘자사 제품’이 대립 관계라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는 내레이션(청각 양식)과 앞서 4명의 여자(‘색소’, ‘칼로리’, ‘설탕’, ‘보존료’)들이 등장한 모습을 결합하여 ‘자사 제품’에는 이러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S10은 ‘흰색 옷을 입은 남자’가 계단에 올라가기 전에 4명의 여자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구도(〈그림 3〉의 우측 그림)를 통해 ‘자사 제품’의 우월성, ‘자사 제품’의 성분이 좋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림 3〉 S9 주목한 장면(좌), S10 주목한 장면(우)

그러나 ‘자사 제품’과 ‘타사 제품’을 비교하여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영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지만 ‘타사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맥락상 텍스트 심층적 의도를 읽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양식의 쓰임에 익숙하지 않거나 여자들의 옷 색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의미화를 하지 못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영상에서 ‘흰색 옷을 입은 남자’와 대립 관계를 하고 있는 여자들의 옷 색깔이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제시된 것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반면, 탄산음료 업체 중 유력한 경쟁 업체의 브랜드 색상이라는 것도 함의되어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수용자의 역할에서 영상을 읽을 때 배경지식과 기준의 텍스트 경험을 활용하여 양식을 해석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4〉 S7의 의미구성 양상

이러한 맥락에서 실험에 참여한 총 12명 학습자 중 1명(S7)만 의미구조를 통해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를 정확하게 읽어냈다. 이는 〈그림 4〉와 같이 마지막 ‘흰색 옷을 입은 남자’가 사라지면서 ‘흰색 포장으로 된 사이다’로 환기된 장면을 통해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가 ‘빨간색 포장을 한 코카콜라’라는 것을 추론해냈다. 그러나 ‘초록색 옷을 입은 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초록색 포장으로 된 음료수’로 답했다.

한편, 의미구성의 실패로 오독을 한 학습자도 있었다. 이는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를 ‘날씬한 사람’, ‘초록색 옷을 입은 여자’를 ‘살이 많은 사람’, ‘흰색 옷을 입은 남자’를 ‘좋은 몸매를 가지고 싶은 사람’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이유는 ‘색소’의 팻말을 찬 여자가 날씬하고, ‘칼로리’의 팻말을 찬 여자는 뚱뚱하기 때문에 ‘칼로리는 살이 찌므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흰색 옷을 입은 남자’가 이러한 유해 성분을 피하면서 최종적으로 색소, 칼로리, 설탕, 보존료가 없는 사이다를 마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기에 광고에서 제시한 음료수는 맛있으면서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는 의미 맥락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익숙한 양식과 그 쓰임을 중심으로 전체 텍

스트의 의도를 만들어나가기에 양식 자체를 의미화하지 못하고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의미 맥락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 사례이다.

이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1차적으로 ‘N 사이다’에 ‘색소, 칼로리 등의 유해물질’이 없다는 것을 읽어냈으나 함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읽어내기 어려웠다. 이는 양식에 대한 정보성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빨간색과 초록색을 타사의 제품으로 연결 짓기에는 힘든 상황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빨간색과 초록색이 상징한 대상은 유명한 업체 브랜드 상품이며 학습자들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배경지식으로 인해 텍스트의 의도를 도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중적·중층적으로 결합된 복합양식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고 의미구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낯설고, 양식 자체의 의미와 양식의 쓰임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그 의미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편지윤 외, 2018 그: 515). 다시 말해, 복합양식 텍스트를 구성하는 양식들의 기호 작용과 그것을 이해하고 전반 의미를 구성해나가는 방법에 대한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3. 비판적 이해의 측면

‘비판적’ 이해 양상을 살펴본 문항은 텍스트 ③인 ‘교복 홍보 전단지’이다. 비판적 이해의 범주에 포함된 요소는 ‘평가’와 ‘재설계’이다. ‘평가’는 텍스트의 형식·구조 및 내용 등이 텍스트의 의미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사회문화적 맥락 요소에 대하여 타당성, 신뢰성, 적절성 등을 판단하는 인지 활동이다(편지윤·서혁, 2020: 230). 이는 양식 및 텍스트 차원에서 형식 및 구조에 대한 평가 활동을 구성할 때, ‘양식 사용의 적절성 판단하기’와 ‘텍스트 디자인의 적합성(appropriateness) 평가하기’ 등으로 이루어지며 두 요소는 모두 복합양식 텍스트의 텍스트성을 메타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인지 활동이다(정현선·박유신·전경란·박한철·이지선·노자연 외, 2015: 70-71).

텍스트 ③은 <그림 5>와 같이 ‘교복 광고 품평회’를 통해 학습자들이 ‘텍스트 디자인의 적합성 평가하기’에 대한 능력을 살펴보는 것이며, ‘광고 평가 기준’과 ‘광고 평가 시 유의사항’에 근거하여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교복 광고의 디자인에 대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 각각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활동이다.

▶ 다음 (가)는 교복 홍보를 목적으로 한 광고 전단지이고, (나)는 교복 광고 품평회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와 (나)를 참고하여, (다)의 내용을 쓰시오.

(가)

(나) 교복 광고 품평회

진행 일정: 2020년 6월 10일 오전 9시~2020년 6월 14일 17시	
진행 목적: 광고의 “디자인” 평가하기	
광고 평가 기준	① 광고가 ‘교복 디자인’의 장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② 광고가 ‘교복 디자인’의 장점을 잘 드러내기 위한 표현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
광고 평가 시 유의사항	① 광고의 특정 부분을 구체적 근거로 제시하여 광고의 디자인을 평가할 것 ② 광고 모델의 개인적 논란을 광고의 디자인 평가에 개입시키지 않을 것 ③ 광고의 디자인이 ‘교복의 기능’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 않을 것
* (나)에 제시된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가) 광고 전단지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각각 쓰시오.	
(다) 교복 광고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점 • 아쉬운 점 	

<그림 5> 텍스트 ③ (교복 홍보 전단지)

전단지에는 다양한 글씨체, 글씨 색깔, 글씨 모양, 말풍선, 이미지 등 여러 양식으로 교복 디자인의 장점을 드러냈다. 학습자들은 전단지를 통해 생산자가 의도하고자 한 내용이 잘 표현되었는지를 평가하였으며, 주로 양식과 레이아웃의 측면에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제시하였다.

〈표 4〉 학습자들이 평가한 디자인 요소

디자인 요소		빈도
좋은 점	1. 교복의 예쁜 디자인을 글씨의 색깔과 글씨체를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8
	2. 교복의 디자인을 말풍선을 통해 표현하였다.	1
	3. 남녀를 좌우로 배치하여 남자 교복과 여자 교복을 구분하였다.	5
	4. 이미지가 좋은 모델로 예쁜 교복의 디자인을 표현하였다.	2
	5. 남녀를 다른 배경색으로 표현하였다.	3
아쉬운 점 11)	1. S라인을 마른 모델의 이미지로 강조하여 마치 ‘마른 것이 유행의 추세’인 것처럼 보였다.	1
	2. 모델이 보편성이 없다.	3
	3. 글자 색깔이 너무 다양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두드러지지 않다.	5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양식의 측면에서 전단지에서 활용한 글씨체, 글씨 색깔, 남녀를 달리한 배경색, 이미지, 그리고 만화 효과를 갖고 있는 말풍선 등을 ‘좋은 점’으로 제시한 반면, 글씨 색깔의 다양성으로 인해 오히려 생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아쉬운 점’도 밝혔다. 주지하듯, 글자의 색깔과 크기 또는 글자 모양을 달리하는 것, 그리고 글자의 배경을 추가하는 것 등이 모두 ‘강조 기제’에 속한다. 그러나 하나의 텍스트에서 많고 다양한 강조 기제를 활용하면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에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다양한 글자 색깔로 인해 너무 복잡한 느낌이 들어 생산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오히려 ‘은폐’되었다고 하였다.

11) 〈그림 5〉의 ‘광고 평가 시 유의사항’을 보면 “광고의 디자인이 ‘교복의 기능’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되어있기에 ‘아쉬운 점’에서 ‘교복 기능’을 평가한 3명의 학습자 답안을 제외하였다.

또한 레이아웃 측면에서 남녀를 ‘좌우’로 배치하여 ‘남자 교복’과 ‘여자 교복’을 구분하여 표현하였다는 데에서도 교복 디자인 홍보에 있어 ‘좋은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녀의 이미지를 너무 예쁘고 마른 체형으로 선정하였기에 ‘보편성이 없다’는 ‘아쉬운 점’도 제시하였다.

S2: 광고에 있는 모델의 스타일이 다양하지 않아요.

S5: 모델 체형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큰 사이즈를 입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체형별로 모델을 선정하여 교복을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S10: 여자 교복이 너무 S라인을 강조하고 모델 이미지와 모델의 포즈에서 마치
‘마른 것이 유행의 추세인 것’처럼 느껴져요.

사후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모델의 보편성에 대해 논의를 많이 하였고, 특히 모델 체형에 관해 서로 다른 체형으로 교복의 디자인을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튜닝 S라인’으로 된 글자와 ‘여자 모델의 포즈’, 그리고 ‘허리라인’ 등을 통해 ‘여자 교복’의 S라인을 강력히 강조하여 사회 현상에 대한 이데올로기 측면도 제시하였다. 주지하듯, ‘여자는 마르면 이쁘다, 날씬하면 이쁘다, 여자는 말라야 한다’ 등과 같이 여자의 외모와 체형에 치중하는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다. 이에 교복 디자인에서 여자의 ‘S라인’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마치 ‘마른 것이 유행의 추세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학습자도 있었다.

이상 학습자들은 복합양식 텍스트에 사용된 양식의 적절성 또는 텍스트 디자인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활동을 통해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텍스트 맥락의 차원에서 이데올로기 측면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복합양식 텍스트를 통해 사실적·추론적 이해뿐만 아니라 텍스트에 포함된 양식과 함축된 사회문화 현상을 메타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비판적 이해까지 나아가는 인지 활동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 12명을 대상으로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를 수행할 때 나타난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그 이해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태적 복합양식 텍스트와 동태적 복합양식 텍스트로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이해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지를 활용하였고, 학습자들이 문항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심층 인터뷰의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종합해 보면,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특정 양식, 텍스트의 구도, 텍스트의 청각 양식 등에 주목하여 의미구성을 하고 있다. 텍스트 ①에서 ‘양식 결합체 간 관계 추론’을 실행할 때, 학습자들은 1차적으로 먼저 텍스트에 포함된 양식을 식별하고 그 의미를 해독하는 사실적 이해를 한 후, 양식과 양식을 ‘통합’하고 ‘해체’¹²⁾하는 과정을 통해 양식 결합체 간의 연결고리를 추론해 냈다. 가령, 텍스트에서 ‘함께 책을 보는 사람들’을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하여 해석하는 것과 ‘함께 책을 보는 사람들’을 ‘남북한 사람’, ‘책’, ‘웃자립’ 등으로 부분적으로 해체하여 해석하는 것을 통해 의미구성을 하는 것이다. 또 한 ‘함께 놀자 동무야’의 ‘동무야’에 주목하여 ‘동무’와 ‘야’ 그리고 ‘야’의 ‘o’을 각각 해체하여 결합하는 양상이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복합양식 텍스트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체와 부분’에 대한 조회를 뜻한다. 한편, 양식의 ‘강조 기제’에 주목하여 부분적 의미를 전체 의미로 오독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복합양식 텍스트에 포함된 다양한 양식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12) 편지윤(2020년)에서는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에서 양식의 중중적인 해석에는 여러 양식을 ‘통합’하거나 다층적으로 읽혀 있는 양식을 ‘해체’하여 읽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텍스트 ②를 통해서는 학습자들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추론하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1차적으로 표층적 의미, 2차적으로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구축한 읽기 경로를 통해 해석해나가고 있으며, 자신의 주목한 양식과 장면들을 뛰어나가면서 의미구성을 하고 있다. 예컨대, 영상의 내레이션과 특정 장면을 결합하여 의미구조를 추론한 경우, 장면에 제시한 구도와 전체 텍스트 맥락을 연결 지어 추론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텍스트에 함축된 의미에 대해서는 추론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양식의 쓰임이 낯설어 의미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편, 양식 자체를 의미화하지 못하여 정보를 놓쳐 의미 맥락의 형성에 영향을 주어 텍스트의 의도를 오독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양식들의 기호 작용과 양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 학습자가 의미구성을 진행해나가는 방법에 대한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텍스트 ③은 ‘양식 사용의 적절성 판단’과 ‘텍스트 디자인의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는 문항을 통해 학습자들의 비판적 이해 수준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였다. 학습자들은 글씨체, 글씨 색깔, 글씨 배경색, 이미지, 레이아웃 등 양식의 측면에서 텍스트 디자인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제시하였다. ‘아쉬운 점’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텍스트 양식의 보편성뿐만 아니라 텍스트 맥락 차원까지 나아가는 이데올로기 측면도 제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실적 이해 수준에서 추론적·비판적 이해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는 활동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복합양식 텍스트를 메타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의 ‘탐색’ 과정에서 학습자가 의미 작용을 하는 양식을 정확하게 식별해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주지하듯, 복합양식 텍스트는 양식들이 다층적·중층적으로 결합하여 구성된 것이다. 이에 양식들의 기호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한다. 앞서 학습자들이 사진, 이미지, 레이아웃, 내레이션, 배경색 등을 통해 텍-

스트를 해독하였다. 양식의 식별과 해독은 의미구성의 성공에 영향을 주며 텍스트의 이해 수준과도 직결적인 관계를 이룬다. 또한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학습자들은 복합양식 텍스트에 문자, 그림, 사진, 내레이션 등 양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 능력, 듣기 능력뿐만 아니라 양식 간의 결합과 양식에 함축된 의미(문화 배경)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양식의 기호 작용을 해석하고 양식의 쓰임을 익히는 교육을 진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 전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이 의미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정태적 복합양식 텍스트(텍스트 ①)에서는 ‘부분과 전체’ 즉 양식을 통합하거나 해체하는 전략을 사용하였고, 동태적 복합양식 텍스트(텍스트 ②)에서는 자신의 읽기 경로를 구축해내여 양식과 장면을 뛰어나가면서 읽는 전략을 보였다. 또한 정태적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를 수행할 때 학습자들은 지시문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정보에 밀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 교육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학습자들은 정태적 복합양식 텍스트의 중요한 부분에 메모를 할 수 있으나 동태적 복합양식 텍스트에는 ‘메모하기’ 전략을 활용할 수 없기에 동태적 복합양식 텍스트를 읽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였다. 전략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양식을 탐색하고 해독하는 과정에서 전체 텍스트의 의도를 이해해내는 데 더욱 효율적이다. 이에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 전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동태적 복합양식 텍스트에 대한 전략을 교육의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

셋째, 공간적 차원에서 복합양식 텍스트의 제시 방식에 따른 읽기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정태적 복합양식 텍스트와 동태적 복합양식 텍스트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제시되므로 각각의 읽기 경로를 구축해내는 것이 학습자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 교육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학습자들은 정태적 복합양식 텍스트와 동태적 복합양식 텍스트에 대한 읽기 어려움을 서로 달리 제시하였다. 정태적 복

합양식 텍스트는 모든 양식들이 평면적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한눈에 텍스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 동태적 복합양식 텍스트보다 읽기 쉽다고 한 학습자가 있는 반면, 동태적 복합양식 텍스트가 더 쉽다고 하는 학습자도 있었다. 가령, 정태적 복합양식 텍스트를 읽을 때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중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면, 동태적 복합양식 텍스트는 제시된 순서대로 읽으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정태적 복합양식 텍스트는 반복적으로 읽을 수 있지만 동태적 복합양식 텍스트는 장면과 장면 사이가 빠르게 연결되므로 앞선 장면을 기억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앞선 장면을 기억하기 위해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텍스트 유형별에 따른 읽기 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동태적 복합양식 텍스트에는 청각 양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활용하므로 그 중 한 양식에만 집중하면 자칫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다. 이에 학습자들의 읽기 공간에 따른 텍스트 유형별 읽기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복합양식 텍스트를 대상으로 사실적 이해 수준을 넘어 추론적·비판적 이해를 도모하는 읽기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추론적·비판적 이해는 한국어 교육에서 문자 중심으로 된 텍스트에서도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김중섭·김정숙·이정희·김지혜·박나리·박진욱 외, 2017)에 제시된 읽기 교육의 목표 및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급(6급)에 대한 기준도 ‘글을 읽고 글의 논리적 의미 관계 및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사실적 읽기에만 그치고 있다. 이에 학습자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한국어 교육에서 추론적·비판적 이해와 관련된 더욱 심화된 학습활동과 읽기 교육을 다루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의 장에서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의 복합양식 텍스트에 대한 이해 양상을 살펴보았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소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다소 제한적이며, 학습자의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이해 수준의 일부 요소만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갖는다. 이 연구를 계기로 복합양식 텍

스트 읽기 교육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추후 초·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복합양식 텍스트에 대한 집단별 이해 양상을 확인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 본 논문은 2023.08.07. 투고되었으며, 2023.08.13. 심사가 시작되어 2023.09.15.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김중섭·김정숙·이정희·김지혜·박나리·박진욱·이수미·강현자·장미정·홍혜란·김경표·김영근·김가연·서정민(2017),『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김혜진·김지혜(2019),「공의 광고를 활용한 한국어 중급 학습자의 복합 문식성 교육 연구」,『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52, 45-74.
- 동아오크카(2013. 3. 25.), 2011 나랑드사이다사교성편(고수), 유튜브, 검색일자 2023. 9. 19., 사이트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BQWurcEBbXg>.
- 변은지·편지윤·한지수·서혁(2019),「복합양식 텍스트가 학습 목적 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청람어문교육』72, 197-240.
- 서울도서관(2019. 12. 3.), [기획전시] 함께 놀자 동무야 : 평화·통일 공감 특별 기획전시, 서울 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일자 2023. 9. 19., 사이트 주소 https://lib.seoul.go.kr/bbs/content/3_46387.
- 서혁·편지윤·변은지·이흠(2021),「문자 텍스트 읽기와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 능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국어교육학연구』56(1), 75-109.
- 서혁·한지수·편지윤·변은지(2018),「중학생의 양식의 정보성 인식 양상 연구- 시선추적기법 을 활용하여」,『국어교육학연구』53(2), 80-110.
- 전형길(2017),「한국어 교사의 매체 문식성 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한국어교육』28(2), 155-184.
- 전형길(2020),「학부생 교양한국어 수업에서 복합양식 문식성 교육에 관한 연구-영화 <부당거래>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한성어문학』42, 79-110.
- 정현선·박유신·전경란·박한철·이지선·노자연·이현석(2015),『미디어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 방안 연구(교육부 제2015-12호)』, 세종: 교육부.
- 최숙기(2013),「복합양식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읽기 행동 분석에 기반한 디지털 시대의 읽기 교육 방안 탐색」,『독서연구』29, 224-264.
- 편지윤(2020ㄱ),「복합양식 텍스트 유형별 읽기 전략 사용 비교」,『청람어문교육』73, 33-59.
- 편지윤(2020ㄴ),「복합양식 텍스트 읽기에서의 전략 사용 양상 연구」,『국어교육』168, 79-116.
- 편지윤·변은지·한지수·서혁(2018 ㄱ),「복합양식 텍스트의 텍스트성 재개념화를 위한 시론」,『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8(2), 493-522.
- 편지윤·서혁(2020),「복합양식 텍스트 읽기의 인지적 평가 요소 개발 연구」,『독서연구』54, 203-244.
- 편지윤·한지수·변은지·서혁(2018 ㄴ),「복합양식 텍스트성으로서의 영상성의 의미 고찰」,『독서연구』49, 125-160.
- Bearne, E. (2011),『읽기 쓰기의 진화: 아이들은 미디어를 어떻게 읽고 쓰고 만드는가』, 정현선(역), 서울: 사회평론(원서출판 2005).

- De Beaugrande, R. & Dressler, W. (1995), 『텍스트 언어학 입문』, 김태옥·이현호(공역), 서울: 한신문화사(원서출판 1981).
- Serafini, F. (2012), "Expanding the four resources model: Reading visual and multimodal texts", *Pedagogies: An International Journal* 7(2), 150-164.
- SNSD RADIO & NEWS(2006. 12. 1.), [CF & Pics] 얼굴빼고 책입진다! 엘리트 퓨닝스타일 (SS501 & 임윤아) - 엘리트학생복, SNSD RADIO & NEWS 홈페이지, 검색일자 2023. 9. 19., 사이트 주소 <http://jiji3104.sunnyday.jp/snsd/?p=70002>.
- Walsh, M. (2006), "The 'textual shift': examining the reading process with print, visual and multimodal texts", *Australian Journal of Language and Literacy* 29(1), 24-37.

복합양식 텍스트에 대한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이해 양상 고찰

이홍·서혁

이 연구는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복합양식 텍스트에 대한 이해 양상을 분석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 교육에 대한 경험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에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이해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지를 통해 학습자의 읽기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심층 인터뷰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읽기 과정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복합양식 텍스트의 사실적, 추론적 읽기에서 자신의 읽기 경로에 따라 양식을 식별하고, 해독하며, 텍스트의 맥락을 통해 서로 다양한 양식을 결합하여 의미구성을 진행해나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판적 읽기에서는 양식 사용의 적절성과 텍스트 디자인에 대한 적합성 평가와 더불어 이데올로기에 대한 양상도 확인하였다.

핵심어 복합양식 텍스트,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읽기, 한국어 읽기 교육, 복합양식 텍스트 읽기

ABSTRACT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Chinese Advanced Korean Learners for Multimodal Text

Li Xin · Suh Hyuk

This study provides an empirical foundation for the reading education of multimodal text by analyzing different aspects of the comprehension of complex modality. Therefore, learners' understanding was examined using a questionnaire comprising level of literal, inferential, critical. Additionally, their reading processes were confirmed based on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The result of the analysis confirmed that learners identified and deciphered styles depending on their own reading path in literal and inferential reading of multimodal texts. Additionally, they constructed meaning by combining various styles depending on the context. In addition, critical reading evaluated the appropriateness of use of the form and text design, as well as confirmed aspects of ideology.

KEYWORDS Multimodal Text, Literal · Inferential · Critical Reading, Korean Reading Education, Multimodal Text Reading